

진로선택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 간 비교 연구*

유 나 현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진로선택 변인들이 어떤 양상을 띠며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진로결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장애, 직업가치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집단', '미발달 집단', '내적몰입 집단'의 세 개의 군집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평균집단의 경우 진로선택 관련변인들의 점수가 모두 평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미발달 집단은 자기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내적몰입 집단은 장애 지각 수준이 낮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였다. 군집의 분포 양상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집의 특성에 대한 해석과 함께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장애, 직업가치, 유형

* 본 연구는 2008년도 두뇌한국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khlee2445@yonsei.ac.kr

진로는 개인의 일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이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학교와 상담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예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성숙(김수리, 이재창, 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이상희, 2006), 진로장애와 진로포부(양현정, 이기학, 2007), 진로효능감과 흥미(임희경, 이기학, 2006),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등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고 진로상담 시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상담 장면에서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직업가치, 포부, 흥미 등등의 다양한 변인을 일일이 고려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각각의 변인이 갖는 의미를 통합적으로 적용시키기도 쉽지 않다. 특히 진로 발달과 관련된 많은 변인들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변인임을 고려할 때, 각 변인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과정 변인들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존재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형 구분(typology)을 도입하여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변인들이 어떤 패턴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있고, 진로와 관련된 개념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다고 볼 때 이들의 진로 선택 과정적 변인들의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진로상담에 시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금까지 진로를 주제로 유형 구분을 논한 대표적인 예는 Holland 흥미유형(1992)과 진로미결정 유형을 들 수 있다. 특히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합한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욕구와 상태에 대한 차별적 진단을 통한 차별적 처치가 필요하다는(김봉환, 1997, Fuqua, Blum, & Hartman, 1988) 의견에 따라 진로미결정 하위 유형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들은(박현일, 김기원, 2003; 장선철, 2004; 이혜성, 홍혜경, 1998; Wanberg, & Muchinsky, 1992) 진로미결정 척도나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에 의존하여 유형을 살펴보았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즉, 이미 존재하는 개념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데 그쳤었고 진로결정 유형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들 연구들은 진로결정의 유형을 적절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진로상담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추후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장선철, 2004). 또한 진로선택의 과정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과정에서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이은경, 2000). 따라서 실제 진로 선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혀진 변인들이 개인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과정적 변인이라고 밝혀진 변인들을 기초로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여러 변인들이 군집을 이루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수많은 진로 관련 변인들 중 특정 영역에 대한 기대, 흥미, 효능감을 제외한 일반적인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많이 다뤄지고 중요하다고 밝혀진 다음의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다룰 때는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 진로탐색 관련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세부 주제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이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염두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변인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된다(Mazurek & Shoemaker, 1997). 이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패턴의 개인차(Glanakos, 1999), 진로탐색행동(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진로미결정, 진로탐색활동, 진로태도(이기학, 이학주, 2000; 이은경, 이혜성, 2002), 직업흥미(Lent, Brown, Larkin, 1987; Lenox & Subish, 1994) 등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흥미를 확고히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변인으로 고려되어졌다(임희경, 이기학, 2006).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결정과 탐색 행동, 태도 등 진로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진로포부가 있다. 진로포부란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동경하는 정도로 정의된다(O'Brien, 1992). 진로포부는 진로발달 이론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진로포부의 안정성, 진로포부에서 나타나는 성차, 특히 학력 우수 집단에서 나타나는 진로포부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진로포부를 잘 설명하는 Gottfredson(1981)의 진로발달에서 제안한 제한 과정에 따르면 개인은 진로포부를 수용 가능한 직업대안들의 영역 안으로 제한하고, 수용가능한 직업의 영역 안에서 더욱 현실적인 직업 선택을 위해 자신의 진로포부를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진로포부는 성차, 인종 등 차별이 있을 수 있는 집단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었고, 최근 들어 진로장애의 수준에 따라 진로포부가 영향을 받는다(양현정, 이기학, 2007)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희망직업 또는 진로의 폭을 줄여나가는데 있어서 진로선택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세 번째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 뿐 아니라 이를 제한하거나 촉진시키는 맥락적 장애의 영향을 제시한 사회 인지진로 이론(Lent, Brown, & Hackett, 1994)에 의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진로장애가 있다. 진로장애는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는 요인으로 정의된다(Tak & Lee, 2003). 이전까지는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Gysbers, Heppner, & Johnson, 2003) 이 같은 선택 과정은 환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당면한 현실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경험하고 타협하게 되며, 개인의 내적 갈등 또한 환상적인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진로장애와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진로장애가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wanson & Daniels, 1995). 진로장애는 진로포부

수준과 진로자기효능감 등을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andura, 1982). 즉, 진로장애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인 어려움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장애는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를 의미 한다(Lent, Brown, & Hackett, 2000). 따라서 개인이 진로장애를 지각하는 정도는 주관적 경험이므로 그 사람이 다른 진로관련 변인들을 지각하는 정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로 직업가치 변인을 꼽을 수 있다. 개인이 직업을 갖는 것은 생계유지의 수단 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자아실현 등의 의미를 지닌다.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질’로 정의되며(Daymont & Andrisani, 1984; 김정숙, 2006)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 내적 가치는 직업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적성과 흥미 추구, 사회 헌신, 인간관계 중심주의, 이상주의, 자기표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외적 가치는 보수, 지위와 같은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권력추구, 경제적 가치추구, 사회적 인식 중시, 안정추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김병숙 외, 1998). 개인은 자신의 직업가치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므로 직업가치는 진로선택에 따른 결과 기대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고려된다(Lent 등 2002). 국내의 직업가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성차,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김영기, 1996; 선혜연 등, 2007).

이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장애, 직업가치는 진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들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이 어떤 양상으로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장애, 직업가치가 나타나는 현상을 군집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과관계를 위주로 연구되었고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변인들이 개인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특정한 양상을 띠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은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자신의 흥미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능력에 대한 지각, 가치 및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등의 발달이 일어난다(Ginzberg et al., 1951). 대학생을 후기 청소년기 또는 성인 초기로 볼 때 진로와 관련한 자기 인식이 과거보다 뚜렷해지고 발달되었으므로 변인들의 인과관계가 아닌 현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진로 발달 관련 변인들을 기초로 대학생들을 분류해 봄으로써 대학생 진로상담에 시사점을 줄 수 있겠다.

더불어 진로 타협과정의 선호도에서 남녀차이가 발견되었듯이(이기학, 조미량, 2003) 진로와 관련하여 성차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남녀에 있어서 군집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가치와 진로에 대한 가족의 기대 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기존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정주리, 이기학, 2007) 본 연구의 진로 발달 관련 군집에 있어서도 성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집과 학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대학교 저학년의 경우 진로 탐색 위주의 진로 발달 과정을 경험하고, 고학년은 진로

결정에 직면해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학년에 따라 군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발달적 특성에 의해 군집형성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볼 수 있는 탐색적 시도가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51(43.7%)명, 여학생 319(55.5%)명, 미응답자 5(9%)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7세까지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75세였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271명(47.1%), 2학년이 160(27.8%), 3학년이 77명(13.4%), 4학년이 61명(10.6%)로 1, 2학년이 3, 4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부터 심리학과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연구자 윤리 규정의 지침에 따라 참여자 모집, 자료 수집, 자료 관리가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z와 Vu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CDMSE-SF)를 이은진(2001)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응답은 '전혀 확신이 없다(1)'부터 '매우 자신이 있다(10)'에 이르는 10개의 구간에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진(2001)이 보고한 단축형의 신뢰도 계수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93이다.

진로포부

진로포부의 측정을 위해 O' Brien(1992)에 의해 개발된 진로포부척도(Career Aspiration Scale; CAS)를 최수욱(2003)이 변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의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진로분야에서 계획과 목표를 측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큰 것으로 본다. 최수욱(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포부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적합치도는 .75이다.

진로 장애

진로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 진로미결정 검사(KCII)를 사용하였다. 한국 진로미결정 검사는 총 22문항으로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장애의 5 가지 하위 요인은 직업 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등이다.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66에서 .89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로 보고되었다(이상희, 2006). 본 연구 자료의 외적장애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6, 내적장애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직업 가치

Amabile 외(1994)의 직업선호검사(Work Preference Inventory: WPI)는 하대현(2002)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내재 동기(자기결정, 유능감, 과제몰두, 호기심, 흥미)와 외재동기(평가에 대한 관심, 타인에 의한 인정, 경쟁에 대한 관심, 돈 또는 물질적 보상에 대한 강조, 타인의 지시에 대한 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평정척도(1점 전혀 아니다, 4점 매우 그렇다)의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대현(2002)에서 확인한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내재동기와 외재 동기 요인이 각각 .78로 동일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이용한 내적 가치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2, 외적가치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5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13.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장애, 직업가치가 어떻게 묶이는지 살펴보았다. 2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Wards의 방법을 사용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별 진로발달 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s)으로 하여 순차적 군집분석법인 K-평균 군집분석법을 통하여 최종 군집을 확정하였다. 확인된 군집이 성별, 학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1	2	3	4	5	6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 진로포부	.396**					
3. 외적진로장애	-.363**	-.220**				
4. 내적진로장애	-.713**	-.387**	.443**			
5. 외적가치	-.094*	.223**	.001	.138**		
6. 내적가치	.435**	.275**	-.167**	-.372**	-.095*	
M	159.93	37.59	7.93	46.93	41.49	43.08
SD	31.32	5.22	3.02	12.56	5.22	5.43

* $p < .05$, ** $p < .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른 주요 변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포부($r = .396, p < .01$), 내적가치($r = .435, p < .01$)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외적진로장애, 내적진로장애, 외적가치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내적진로장애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은 부적상관을 보여($r = -.713, p < .01$) 둘 간의 관련성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포부는 내적가치($r = .275, p < .01$)와 외적가치($r = .223, p < .01$)와는 정적상관, 내적진로장애($r = -.387, p < .01$)와 외적진로장애($r = -.220, p < .01$)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외적진로장애와 내적진로장애는 .443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 두 가지 진로장애가 서로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외적가치와 내적가치는 유의미하지만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r = -.095, p < .05$)

진로선택 변인들의 군집

진로선택 변인들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군집을 분류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총점의

차이가 크므로 변인들을 표준점수(Z)로 변환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의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개의 군집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각 군집의 진로발달 변인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3개 군집에 대한 빈도는 군집 1이 255명, 군집 2가 174명, 군집 3이 145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조하여 2단계로 K-평균 군집분석법을 통하여 평균점을 중심으로 3개의 군집을 재산출하였고 최종 3개의 군집별 빈도는 군집 1이 259명, 군집 2가 170명, 군집 3이 145명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진로발달 변인들의 평균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군집별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1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군집 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외적장애, 내적장애, 외적가치, 내적가치가 모두 평균 수준에 속하는 경우이다. 군집 2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내적가치가 낮고 외적 장애와 내적장애가 높은 경우이다. 군집 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 내적가치가 높고 외적장애와 내적장애가

표 2 군집분석을 통해 구성된 군집별 평균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1단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외적 진로장애	내적 진로장애	외적가치	내적가치
군집 1	.09052	-.01455	-.10821	-.02120	-.11443	-.05981
군집 2	-1.01112	-.65518	.72746	.98647	-.69300	.15833
군집 3	1.04820	.77810	-.68386	-1.12228	.93261	.02808
K-평균 군집분석 결과(2단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외적 진로장애	내적 진로장애	외적가치	내적가치
군집 1	.08518	-.02803	-.09726	-.01085	-.11848	-.05487
군집 2	-1.02891	-.64972	.73044	.99441	.17093	-.71542
군집 3	1.04820	.77810	-.68386	-1.12228	.02808	.93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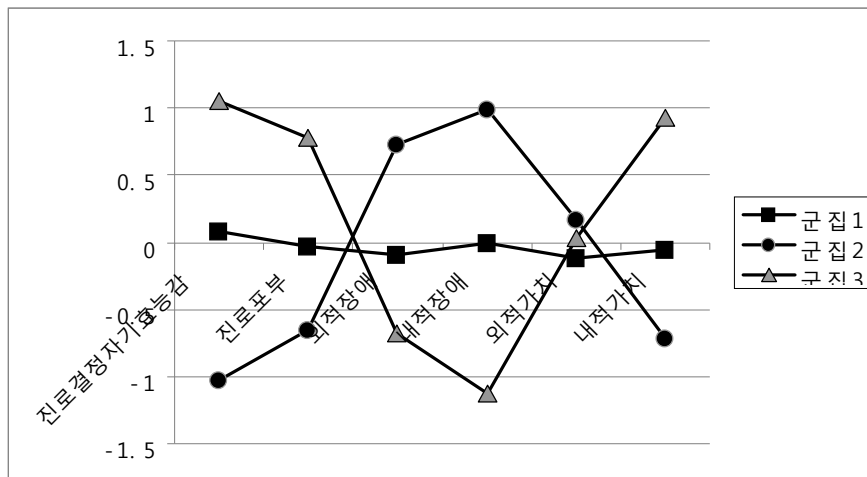


그림 1. 군집별 평균 점수의 분포 양상

낮은 경우이다.

(11.5%), 3군집 22명(36.1%)이었다.

성별과 학년별 군집비율

성별에 따라 군집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군집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군집의 분포는 다르게 나타났다($\chi^2 = 17.463, df = 2, p = .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군집은 115명(45.8%), 2군집은 55명(21.9%), 3군집은 81명(32.3%)이었고, 여자의 경우 1군집은 142명(44.7%), 2군집은 113명(35.5%), 3군집은 63명(19.8%)으로 구성되었다. 학년과 군집의 교차분석 결과 역시 학년에 따라 군집의 분포가 차이를 나타냈다($\chi^2 = 18.171, df = 6, p = .006$). 1학년의 경우 1군집은 121명(44.6%), 2군집은 93명(34.3%), 3군집은 57명(21.0%)이었고, 2학년은 1군집 68명(42.5%), 2군집 52명(32.5%), 3군집 40명(25.0%), 3학년은 1군집 36명(47.4%), 2군집 16명(21.1%), 3군집 24명(31.6%), 4학년은 1군집 32명(52.5%), 2군집 7명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각 변인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진로 선택 관련 변인들과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른 주요 변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내적진로장애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내 효능감이 내적인 갈등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포부는 내·외적가치와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진로장애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진로포부가 평가에 대한 관심, 타인의 인정, 물질적 보상과 같은 외재동기와 자기결정, 유능감, 과제몰두, 호기

심, 흥미와 같은 내재동기 모두와 관계됨을 알 수 있었다.

군집분석 결과 세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외적장애, 내적장애, 외적가치, 내적가치가 모두 평균 수준에 속하는 경우로 ‘평균 집단’이라고 명명하겠다. 평균집단의 프로파일은 대체로 무난하고 평범한 특징을 보인다. 실제 이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을 수 있다. 반면 원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에서 높을수록 높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 성숙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기학, 이학주, 2000). 또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회피하게 한다고 밝혀진 바(Bandura, 198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평균집단의 점수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아직 어렵다. 그렇다고 평균집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결론 내릴 근거도 부족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진로 관련 변인의 점수가 높거나 낮은 것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추후 평균적인 점수대를 보이는 사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실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함된 집단이 군집 1임을 감안할 때 각종 변인에 대한 점수가 평균인 개인이 진로 발달을 잘 이뤄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시도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군집 2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내적가치가 낮고 외적장애와 내적장애가 높은 경우로 진로 관련 자아 개념이 덜 발달된 특징을 지닌다. 이에 군집 2를 ‘미발달 집단’으로 명명하겠다. 이들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적고 포부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직업가

치에 대한 명료한 자기이해를 발달시키지 못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진로장애에 대한 지각수준은 높아서 전반적으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미결정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정의되는데(Callanan, & Greenhaus, 1990) 군집 2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다른 변인들의 경향도 부정적임을 고려할 때 진로미결정 유형과 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군집 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 내적가치가 높고 외적장애와 내적장애가 낮은 경우이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크고 그에 따라 성공과 성취에 대한 동경도 크다. 또한 유능감, 흥미 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군집 2의 ‘미발달 집단’과는 달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기대도 크나 진로장애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1994)에 따르면 진로장애는 직업선택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타협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애를 분석하여 지각의 현실성과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보는 것은 진로상담에서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Brown & Lent, 1996). 그런데 군집 3의 경우, 진로장애에 대한 지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 현실적 진로장애의 어려움이 적은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진로장애를 과소평가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지각된 진로장애가 적으므로 보다 쉽게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

과업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경우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로 군집 3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이해는 자신의 내적 상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집 3을 ‘내적몰입 집단’이라고 명명하겠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내적몰입 집단에 속한다면 현실적 진로장애를 평가하여 지각된 진로장애 수준이 낮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겠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맥락적 장애의 개념을 진로결정 단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그 이전의 과거 경험에 영향을 준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Lent 등, 1994) 내적몰입 집단은 전자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들은 대학교 4학년 시기나 사회진출을 실제로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러 진로장애를 지각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군집의 분포 양상이 다른지 살펴본 카이제곱 검증 결과, 군집의 분포는 남녀에 따라 달랐다. 군집 1인 평균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남녀에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내적몰입 집단의 비율이 미발달 집단의 비율보다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미발달 집단의 비율이 내적몰입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진로장애가 주로 여성의 수학, 과학적 능력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점(Betz & Fitzgerald, 1987)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보인다. 여성들이 현실적인 취업, 승진, 가사 및 육아 등에서 더 많은 진로장애를 지각하고 있고 동시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포부수준, 내적가치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졸업 후 계획이 확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에 대해 응답

한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05). 이는 성별에 따른 군집분포가 실제 진로 수행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 진다.

학년에 따른 군집 분포 양상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다르게 나타났다. 1, 2학년과 3, 4학년 간에 다른 양상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평균 집단은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학년의 경우 내적몰입 집단보다 미발달 집단의 비율이 더 높았고 고학년의 경우 내적몰입 집단이 미발달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고학년이 될수록 사회진출을 모색하며 현실적인 진로장애를 더 지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불일치한다. 오히려 저학년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면서 진로장애를 지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 실제로 진로를 결정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 학부제로 입학하여 학과 선택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진로 탐색과 결정을 동시에 내려야 하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학부에서 전공 선택을 해야 하는 저학년에게서 진로결정에 대한 혼란이 나타났다는 결과(김민정, 김봉환, 2007)와 일치된다. 취업준비 시기가 대체로 대학교 3학년 즈음인 것(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05)을 고려해 볼 때 진로포부, 가치, 효능감이 덜 발달된 상태에서 결정과 미래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지각된 장애가 높은 저학년 시기가 실제 취업 준비 시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학년들의 전공 선택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변인은 다수에 이른다.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집단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들어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주된 발달 과업인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진로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전후 관계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변인들이 현재 개인에게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는 대학생 시기는 효능감, 흥미, 가치 등의 변인들이 이미 형성되어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로 Nauta 등(2002)은 대학생의 흥미와 자기 효능감 변인을 7개월 간 살펴본 결과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군집 분석을 통해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변인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진로 발달을 논할 때 변인 각각을 고려하는 것 뿐 아니라 각 변인들이 어떻게 함께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내·외적장애, 내·외적가치는 세 가지 군집으로 구성되어 각 변인을 고려함에 있어서 나머지 변인들도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과 관련된 고

민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는 과정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학 상담소에서 진로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개인상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수천, 수만에 이르는 대학 정원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진로 관련 서비스를 누리려는 학생의 수를 늘릴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단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집단 프로그램은 주로 대상에 제한 없이 해당 대학교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진행이 되어왔다. 이 때 장점은 대상 모집이 용이하다는 점과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형화는 대상을 구분하는 토대를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군집 1에 속한 학생들과 군집, 2와 3에 속한 학생들은 진로 집단 상담에 요구하는 바가 분명 다를 것이다.

셋째, 유형화는 개인 상담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유형을 통해 개인이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진로 선택의 과업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와 개입 방법 등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겠다. 이처럼 다각도로 유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선택 관련 변인들을 기초로 군

집이 형성됨을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추후에는 형성된 군집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이 좋고 유용, 타당한 진로 선택 관련 군집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 유형들과의 상관을 알아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미결정 유형, 2, 3가지 코드로 분류되는 Holland 유형과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진로발달 변인들이 진로선택과 진로선택의 어려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상을 달리하여 반복연구를 통해 군집분석 결과가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몇 가지 진로 선택 변인으로 군집을 나누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있다. 추후 진로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형을 구분해 보는 것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병숙, 강일규, 진미석, 장원섭, 김해동, 권진희, 정윤경, 정현식, 이양구 (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영기 (1996). 중·고등학생의 일의 가치에 따른 진로의식성숙. *한국진로상담학회지*, 1(1), 47-62.
- 김정숙 (2006). 중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박현일, 김기원 (2003).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집단의 유형연구(전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24(2), 161-187.
- 선혜연, 황태향, 김영빈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상담학연구*, 8(2), 549-563.
- 양현정, 이기학 (2007). 남녀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포부간의 관계 연구.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596-597.
-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05). 2005학년도 단과대학별 재학생 실태조사.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기학, 조미량 (2003).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보이는 남녀간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 1-13.
- 이상희 (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 이은경, 이해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성,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 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 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43-166.
- 임희경, 이기학 (2006).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효능감이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53-67.
- 장선철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33-551.
- 정주리, 이기학 (2007).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61-174.
- 최수욱 (2003).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대현 (2002). T. Amabile의 창의성 이론에 근거한 동기와 창의성 간의 관계 연구. *교육학연구*, 40, 111-142.
-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2.
- Amabile, T. M., Hill, K. G., Hennessey, B. A., & Tighe, E. M. (1994).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Assess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JSPS*, 66, 950-967.
- Bandura, A. (1982). The self and mechanism of agency.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p.3-39). Hillsdale, NJ: Erlbaum.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2.
-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466.
- Callanan, G. S., & Greenhaus, J. H. (1990).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Development of a scale and test of a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79-103.
- Daymont, T. N., & Andrisani, P. J. (1984). Job preference, college major, and the gender gap in earning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3), 408-428.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Gianakos, L. (1999).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44-258.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on, J. A. (2003).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 Holland, J. L.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2nd ed.). Odesa, FL: Psychology Assessment Resources.
- Lenox, R. A., & Subich, L.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inventoried vocational interes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302-31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Sociocognitive mechanism of personal agency in career development: Pantheoretical prospects. In M. L., Savics & R. W. Lent(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77-101.,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L. (1987). Comparison of three theoretically derived variables in predicting career and academic behavior: Self-efficacy, interest congruence, and consequence thin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93-298.
- Mazurek, N., & Shoemaker, A. (1997).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089 763).
- Nauta, M. M., Kahn, J. H., Angell, J. W., & Cantarelli, E. A. (2002). Identifying the antecedent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interests and self-efficacy: Is it one, the other, or bo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290-301
- O' Brien ,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Available from K. M. O' Brien,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28-345.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원고접수일 : 2008. 1. 31.
게재결정일 : 2008. 3. 28.

Cluster types of Career related variables

Nahyun Yoo

Department of Psychology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cluster types of career related variables to understand typology of career choice process among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582 undergraduate students in South Korea and they completed a packet of questionnaire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aspiration, career barriers, and work value. After cluster analysis, three clusters were derived; they were named as mean group, undeveloped group, and internal oriented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aspiration, career barriers, work value, cluster type*